

추후관리를 받은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 비교*

이 광 옥** · 이 자 형** · 백 윤 미***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저출생체중아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과 성장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영자 et al, 1999). 국내 저출생체중아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통계청(1999) 3.6%, 박정환(1997) 6.0-6.4%, 한영자 등(1998)은 3.39%, WHO(1997)에서는 약 7%로 제시하고 있다. 미숙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출생아이며, 저출생체중아는 출생시 체중이 2,500gm 미만의 출생아(WHO, 1976). 미숙아의 대부분은 저체중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측정기준이 명확한 저출생체중아를 미숙아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숙아 및 저출생체중아는 대학병원 등에서 의학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은 후 퇴원을 하게 되는데,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퇴원 후 가정에서도 주위환경과 영양, 질병 등에 유의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에 있어 지식, 양육기술 및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면 어머니로서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Bialoskurski, Cox 와 Hayes(1999)에 따르면 고위험 신생아를 가진 어머니는 정상신생아를 출산한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모성역할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모성역할자신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권미경(1998)의 연구에 의하면 미숙아의 부모는 영아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무력감과 신체적 피로를 느껴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힘들게 됨으로써 영아의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raley(1990)의 연구에 따르면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는 지속적인 슬픔, 무력감, 좌절감, 비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임지영(1996)에 따르면 미숙아 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양육동안 정서적 불안정, 상실감을 나타내고 애착형성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와해, 부적절한 부모역할, 미숙아 학대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부정적인 어머니-영아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환경은 저출생체중아의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를 증가시키는 중요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추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지체계를 제공하여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모아관계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저출생체중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저출생체중아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보건복지부주관하에 전국 245개 보건소중 23개의 대도시, 중소도시에 위치한 보건소를 선정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14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는데, 이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추후관리 사업은 5개 보건소에서 실시되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저

* 본 연구는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간호정보센터 학술지원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교신저자 E-mail: ympaek@hallym.ac.kr)

출생체중아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지역내 출생실태를 파악하고, 병원 퇴원직후부터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보건소 중심 추후관리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진행된 연구로는 전경자 등(2001)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추후관리평가, 안영미(2000)의 미숙아를 위한 지역중심 건강관리사업 모델개발연구, 김용순 등(2002)의 일개시 보건소의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등록된 저출생체중아 추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연구로 간호중재를 통한 추후관리로서 저출생체중아를 가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자신감의 전, 후 비교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도시 보건소에 신규등록되는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통한 추후관리 전, 후의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자신감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양육자신감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다.
-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다.
- 3) 추후관리 전, 후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양육자신감을 평가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추후관리제공 전, 후의 양육자신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의 변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이다 <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pre-test	Tx	post-test
group	O ₁	X ₁	O ₂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지역내 거주하면서 보건소에 신규등록되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출생체중아 있는 어머니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어머니 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 사회적지지 : Pascoe와 French(1990)의 사회적지지 지표(Maternal Social Support Index)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제공된 지지를 사정하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지체계의 구조보다는 지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만족감을 측정한다. 도구의 Cronbach's α 는 채선미(2001)의 연구에서는 .6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로 측정하였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각각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문항점수는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5였고(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 양육자신감 : Parker와 Zahr(1985)의 모성자신감 설문지(Maternal Confidence Questionnaire)로 측정한다. 5점척도의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9이었고(Parker & Zahr,1985),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보건소에 신규등록되는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중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조사후 간호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6주후 사후결과를 조사하였다. 가정방문 서비스내용은 선행문헌과 예비조사를 통해 저출생체중아를 가진 어머니와 아기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는 간호학교수 3인, 의과대학교수 1인으로부터 검토받은후 최종수정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내용은 <Table 2>와 같다.

간호중재서비스 내용일치를 위하여 연구자와 2명의

〈Table 2〉 Nursing intervention through the follow-up care

Phase	Nursing Intervention
1st	to build trustable relationship and problem assessment - introduce visiting nurse and explain the purpose of visit to build tru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 and the mother. - express nurse's intimacy and interest, and encourage mother to express her feeling about her low birth weight infant - check the state of basic body growth, feeding method, sleep state, type of weaning diet, and state of defecation.
2nd	emotional support & giving information - make up the mood to help mother to express their experiences about caring her low birth weight infant, and build up sympathy - support many substantial and useful datas(materials) which may needed for caring their baby. - give informations about feeding, defecating, sleeping, nutrition, health care, vaccinating. - check the state of infant's body growth, feeding method, sleep state, weaning diet, and state of defecation.
3rd	Showing practical caring guidance & encourage mother - encourage mother / - show the practical caring guidance and set the examples(ex: baby massage) - inspect the environment (indoor temperature, humidity, circumstances) - check the state of infant's basic body growth, feeding method, sleep state, weaning diet, and state of defecation.
4,5th	strong emotional support & counselling - encourage mother to express their difficulties on caring their baby, and try to express nurse's understanding by using positive listening skills. It may lead to the strong emotional support. - encourage mother to ask questions that arised during the period of caring their baby, and discuss together about the solutions.
6th	strengthen the emotional support, counselling & evaluation - strengthen the emotional support to help mother to express their difficulties by using positive listening skills and encouragement. - check the state of infant's basic body growth, feeding method, sleep state, weaning diet, and state of defecation. - counseling about their difficulties and give the contact number for further consultation

훈련된 방문간호사간에 연구전 사전모임을 5회 이상 가져 중재내용을 일치시켰고, pilot조사를 통해 중재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총 6회의 간호중재서비스를 직접방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설문조사방법은 자가 기입식과 훈련된 가정방문 간호사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8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양육자신감에 대한 집단별 비교는 t-test, χ^2 -test, 중재프로그램 전, 후 평가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41명(46.9%), 학력은 고졸이 41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유무에서 전업주부인 경우가 78명(90.7%)이었고, 분만형태는 제왕절개가 50명(56.8%)으로 자연분만보다 더 많았다.

저출생체중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4〉와 같다. 남아가 47명(53.1%)으로 여아보다 많았고, 쌍생아는 14명(15.9%)이었다. 대상자의 첫 가정방문시 교정연령기준 3개월 미만이 32명(36.3%), 3개월 이상이 56명(63.7%)이었다. 현재체중을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대비했을 때, 10-90 percentile이 57명(64.7%)으로 가장 많았으나 5백분위수이하도 9명(10.2%)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체태연령은 33-37주이하가 75명(85.3%)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시 체중분포는 체중이 1500-2500g 미만이 74명(84.1%)으로 가장 많았고, 극소 저출생체중아가 11명(12.5%), 초극소 저출생체중아가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low birth weight's infants mother (n=8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SD
age	21-25	5	5.4	31.7±4.1
	26-30	28	32.0	
	31-35	41	46.9	
	above 36	14	15.7	
	total	88	100.0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6	6.9	
	High school	41	47.1	
	above college graduate	40	46.0	
	total	135	100.0	
job	housewife	78	90.7	
	worker	10	9.3	
	total	88	100.0	
Delivery types	vaginal type	37	42.0	
	C/S type	50	56.8	
	induced labor	1	1.2	
	total	88	100.0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n=8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SD
sex	boy	47	53.1	
	girl	41	46.9	
	total	88	100.0	
twins	yes	14	15.9	
	no	74	84.1	
birth order	total	88	62.6	
	1st	36	40.9	
	above 2nd	52	59.1	
adjusted age	total	88	62.6	3.8± 1.7
	below 3month	32	36.3	
	above 3month	56	63.7	
current weight	total	88	100.0	
	under 5percentile	9	10.2	
	10-90percentile	57	64.7	
	above 95percentile	22	25.1	
gestational period	total	88	100.0	35.2± 2.7
	under 32week	13	14.7	
	33-37week	75	85.3	
birth weight	total	88	100.0	2,246.8±490.9
	ELBW(below 1000g)	3	3.4	
	VLBW(below1000-1,500g)	11	12.5	
	LBW(below1,500g-2,500g)	74	84.1	
re-admission after discharge	total	88	100.0	
	yes	36	41.4	
	no	52	58.6	

명(3.4%)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의 퇴원시 입원유무를 살펴보면 입원하지 않은 경우가 52명(58.6%), 입원후 퇴원이 36명(41.4%)으로 나타났다.

2. 집단별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검증

전체 대상자 88명에 대하여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 출생순위 첫째와 둘째이상에 따른 어머니와 저출생

체중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의 평균적인 연령은 32세, 직업은 전업주부가 73.9%, 교육수준은 고졸 47.7%, 재태기간은 평균 35주로 두집단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분만방식에서 3개월 미만과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는 정상분만이 많은 반면 3개월 이상과 출생순위 둘째이상에서는 제왕절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아가 51.1%로 여아보다 많았고, 둘째이상인 경우가 62.5%, 출생시 체중 2.2kg, 출생시 두위 31cm이었고, 퇴원후 병원 재입원률에서 3개월 이상인 경우가 45.7%로 3개월 미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N=88)

variables		Total	below 3month (N=33)	above 3month (N=55)	t	P
	Age	32.09±4.02	31.67±4.05	32.51±4.00	-0.951	0.344
Job	yes	23(26.1)	13(39.4)	10(18.2)		0.083
	no	65(73.9)	20(60.4)	45(81.8)		
Mother	Education					0.101
	under middle school	6(6.8)	1(3.0)	5(9.1)		
	High school	42(47.7)	14(42.4)	28(50.9)		
	above college graduate	40(45.5)	18(54.5)	22(40.0)		
	Gestational Weeks	35.32±2.41	35.36±1.88	35.29±2.94	0.58	0.565
Delivery types	vaginal	37(42.0)	16(50.0)	21(37.5)		0.184
	C/S	50(56.9)	15(46.9)	35(62.5)		
	induced labor	1(1.1)	1(3.1)	-		
sex	male	45(51.1)	15(45.5)	30(54.5)		0.367
	female	43(48.9)	18(54.5)	25(45.5)		
birth order	first	33(37.5)	15(45.5)	21(38.2)	-0.67	0.507
	above 2nd	55(62.5)	18(54.5)	34(61.8)		
LBW	birth weight	2.26±0.45	2.28±0.40	2.24±0.51	0.94	0.349
	birth head circumference(cm)	31.82±2.09	31.72±1.56	31.93±2.63	1.30	0.198
re-admission after discharge	yes	29(41.4)	8(33.3)	21(45.7)		0.359
	no	41(58.6)	16(66.7)	25(54.3)		
variables		Total	first (N=36)	above 2nd (N=52)	t	P
	Age	31.87±3.67	30.09±3.79	33.65±3.56	-0.95	0.089
Job	yes	23(26.1)	11(26.8)	12(25.5)		0.363
	no	65(73.9)	30(73.2)	35(74.5)		
Mother	Education					0.294
	under middle school	6(6.8)	1(2.8)	5(9.6)		
	High school	42(47.7)	16(44.4)	26(50.0)		
	above college graduate	40(45.5)	19(52.8)	21(40.4)		
	Gestational Weeks	35.33±2.63	35.50±2.76	35.17±2.50	0.14	0.892
Delivery types	vaginal type	36(41.4)	20(55.6)	16(31.4)		0.095
	C/S type	50(57.5)	15(41.7)	35(68.6)		
	induced labor	1(1.1)	1(2.8)	0		
sex	male	45(51.1)	18(50.0)	27(51.9)		0.859
	female	43(48.9)	18(50.0)	25(48.1)		
adjusted age	below 3month	33(37.5)	15(41.7)	18(34.6)		0.502
	above 3month	55(62.5)	21(58.3)	34(65.4)		
LBW	birth weight	2.26±0.47	2.31±0.49	2.21±0.45	0.35	0.724
	birth head circumference(cm)	31.93±2.18	32.30±1.82	31.56±2.54	-0.36	0.718
re-admission after discharge	yes	29(41.4)	6(26.1)	23(48.9)		0.064
	no	41(58.6)	17(73.9)	24(51.1)		

3.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응답한 부모는 88명으로 평균 점수는 44점만점에 19.31점이었다(Table 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집단별 비교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정연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저출생체중아 부모 88명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총 40점만점중 25.06점으로 나타나 중간수준 이상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자아존중감에 따른 집단별 비교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정연령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평균점수가 낮았다.

5.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양육자신감

총 88명의 부모가 양육자신감 설문지에 응답하였고, 이들의 양육자신감 평균점수는 70점만점에 40.80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부모의 양육자신감을 아기의 교정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정연령이 3개월 미만이거나 출생순위가 첫째인 부모의 양육자신감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자신감에 대한 간호중재 전,후 비교

<Table 6> Comparison with social support of low birth weight's mothers by group (n=88)

Group	classification	n	M±SD	t	p
adjusted age	below 3month	32	20.56±7.02	1.414	.238
	above 3month	56	18.59±7.74		
birth order	first	36	19.14±7.09	0.062	.804
	above second	52	19.55±7.87		
total		88	19.31±7.51		

<Table 7> Comparison with self-esteem of low birth weight's mothers by group (n=88)

Group	classification	n	M±SD	t	p
adjusted age	below 3month	32	25.91±5.97	0.776	.381
	above 3month	56	24.56±7.35		
birth order	first	36	24.58±6.96	0.252	.617
	above second	52	25.35±6.90		
total		88	25.06±6.86		

<Table 8> Comparison with maternal confidence of low birth weight's mothers by group (n=88)

Group	classification	n	M±SD	t	p
adjusted age	below 3month	32	40.23±11.59	0.345	.558
	above 3month	56	41.76±12.22		
birth order	first	36	39.86±11.15	0.404	.527
	above second	52	41.50±12.37		
total		88	40.80±11.79		

<Table 9>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nursing intervention o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maternal confidence (n=88)

characteristics	pre-intervention M±SD	post-intervention M±SD	t	p
social support	19.31± 7.51	20.72±7.10	20.195	.001***
self-esteem	25.06± 6.86	27.06±5.12	5.328	.001***
maternal confidence	40.80±11.79	45.04±9.29	8.984	.001***

p<.001***

간호중재전과 간호중재 후 양육자신감,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환경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양육자신감은 중재전 평균점수 40.80점에서 중재 후 45.04점($t = 8.984, p = 0.001$)으로, 사회적 지지는 중재전 평균점수 19.31점에서 20.72점($t = 20.195, p = 0.001$)으로, 자아존중감은 중재전 평균점수 25.06점에서 중재 후 27.06점($t = 5.328, p = 0.001$)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영아사망률은 국민보건수준을 평가하는 간접적인 보건 지표로서, 우리나라에서 영아사망률의 1/3을 차지하는 원인중 한가지로 저체중을 제시하고 있다(이철, 1997). 지역사회내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은 1990년 이후 조사결과 6.0-6.4%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데(한영자, 1999), 이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7%, 일본 7.1%, 영국 7.2%, 캐나다 6.0%로 나타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관리는 의학적,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된다.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어머니는 정상신생아를 출산한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양육자신감도 낮아 모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정적인 양육환경은 저출생체중아의 발달 지연이나 발달장애를 증가시키는 중요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추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늦게나마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하에 모자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운영하였는데, 운영프로그램중 한 가지가 저출생체중아를 위한 보건소중심 가정 방문사업이다. 이러한 추후관리프로그램이 모성의 심리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성역할증진, 육아실무능력, 모아애착증진 뿐 아니라 영아의 성장발달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영미, 2003).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이들의 양육자신감,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저출생체중아를 가진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46.9%로 가장 많았고, 35세이상의 고령

산모도 15.7%로 많았다. 이영규(1995년)는 고령 초산모의 저출생체중아 분만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김선옥(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35세이상 고령산모가 16.3%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아(2003)의 2001년도 통계청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산모의 연령이 19세이하와 35세이상인 경우 저출생체중아 출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 부모의 양육자신감은 평균점수 40.80점으로 중간수준이었다. 부모의 양육자신감을 아기의 교정연령에 따라 비교한 결과, 교정연령 3개월 미만의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의 부모보다 양육자신감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채선미(200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3개월 미만의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아기 상태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경자(2001)의 연구에서도 2개월 이하의 저출생체중아를 둔 어머니가 다른 월령의 어머니에 비하여 자신감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연령 3개월 미만의 저출생체중아를 가진 부모의 양육자신감 향상을 돕는 간호중재서비스가 출생후 가능한 빠른시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양육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양육경험 유무에 따라 양육자신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Zahr(1991)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분만력과 양육자신감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서는 평균 19.31점으로 최고가능점수 33점과 비교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여, 저출생체중아를 가진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Affleck 등(198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초기적응과정에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지지 내용으로 저출생체중아 부모가 받기 원하는 것으로 Kenner와 Lott(1990)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적 지지를 통해 저출생체중아를 가진 부모에게 긍정적 지지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Mckim(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56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 부모가 받은 부모에 비하여 아기를 양육할 때 더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 양육에 대한 다양한 간호중재프로그램중 부모교육과 사회적지지등의 서비스가 저출생체중아 부모의 양육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Minde(1983)와 Nurcombe(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에게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적응과 양육자 신감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인혜(1999), Rauth 등(198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중재를 통해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양육자신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5.06점으로 중간수준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심미경, 1997)과 채(2002)의 저출생체중아 부모대상의 자아존중감 점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심(1997)의 연구대상자는 만성적인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가 저출생체중아에 비하여 좀 더 빨리 아이장애에 적응하였기 때문이고, 채(2002)의 연구대상에서는 대상자수가 15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점수가 본 연구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Kenner 와 Lott(1990)의 연구에 의하면 저출생체중아 부모는 아기의 퇴원시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저출생체중아 부모의 양육자신감,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기전과 간호중재 6주후를 비교한 결과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효과적인 간호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저출생체중아를 가진 부모의 양육자신감,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출생체중아에 있는 어머니 88명을 대상으로 간호중재서비스 전, 후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자신감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고, 조사방법은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와 훈련된 가정방문 간호사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도구로 사회적 지지는 Pascoe와 French (1990)의 사회적지지 지표(Maternal Social Support Index) 도구를,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양육자신감은 Parker와 Zahr(1985)의 모성자신감 설문지(Maternal Confidenc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41명(46.9%), 학력은 고졸이 41명(47.1%), 직업유무에서 전업주부가 78명(90.7%), 분만형태는 제왕절개가 50명(5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에서는 남아가 47명(53.1%)으로 여아보다 많았고, 쌍생아는 14명(15.9%)이었다. 대상자의 첫 가정방문시 교정연령기준 3개월 미만인 32명(36.3%), 3개월 이상이 56명(63.7%)이었다. 출생시 재태연령은 33-37주이하가 75명(85.3%)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시 체중분포는 체중이 1500-2500g 미만이 74명(84.1%)으로 가장 많았고, 극소 저출생체중아가 11명(12.5%), 초극소 저출생체중아가 3명(3.4%)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균 점수는 19.31점으로 집단별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교정연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균점수는 총 40점중 25.06점으로 나타나 중간수준이상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집단별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교정연령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평균점수가 낮았다.
4. 부모의 양육자신감 평균점수는 40.80점으로 아기의 교정연령, 출생순위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정연령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출생순위가 첫째인 부모의 양육자신감 점수가 더 낮았다.
5. 가정방문 전, 후에 따른 양육자신감,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비교시, 양육자신감은 중재전 평균 40.80점에서 중재후 45.04점($t = 8.984, p = 0.001$)으로, 사회적 지지는 중재전 평균 19.31점에서 20.72점($t = 20.195, p = 0.001$)으로, 자아존중감은 중재전 평균 25.06점에서 중재후 27.06점($t = 5.328, p = 0.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의의는 지역사회중심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간호중재를 통한 추후관리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향후 저출생체중아 추후관리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려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저출생체중아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고, 저출생체중아는 병원에서 퇴원과 동시에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간호중재프로그램도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특성이 고려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ffleck, G., & Walker, L. (1989). Effects of formal support on mothers' adaptation to the hospital-to-home transition of high-risk infants : The benefits and costs of helping. *Child Deveoplment*, 60, 488-501
- An, Young Mi & Kim, Jung Hyun (2003). Comparison of Maternal Self-esteem, Postpartal Depression, and Family Function in Mothers of Normal and of Low Birth-weight Infants. *J Korean Acad Nurs*, 33(5), 580-590
- An, Young Mi (2002).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Community-based Health Care Program for Premature Infants and Family. *Korean J of Child Health Nursing*, 8(2), 129-140
- Barrara, M. E., Rosenbaum, P. L., & Cunningham, C. E. (1986). Early home intervention with low-birth-weight infants and their parents. *Child Deveoplment*, 57, 20-33
- Bialoskurski, M., Cox, C. L., & Hayes, J. A. (1999). The nature of attainment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J Perinat Neonatal Nurs*, 13(1), 66-76
- Blackburn, S. (1995). Problems of preterm infants after discharge. *JOGNN*, 24(1), 43-49.
- Chae, Sun-Mi (2001).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ransitional Care Program for Low Birth Weight Infants and Mothers. published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Fralely, A. (1990). Chronic sorrow : A parental response. *Pediatric Nursing*, 5, 268-273
- Gross, R. T., Spider, D. & Haynes, C. W. (1997). Helping low birth weight, Premature babies : The 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 Young Ja (1998). Statistical Status on Maternal Child Health for Health statistical database establishment. The 23rd Health Science conference. 110
- Han, Young-Ja, Seo, Kyung, Shin, Son-mun, Lee, Seung-uk, Do, Se-Rok (1999).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Political issues of LBW. Seoul: KIHASA.
- Hwang, Na-Mi & Moon, Byung Yun (1996). The status and management related childbirth on Premature and Congenital Anomaly, KIHASA.
- Hwang, Na-Mi (1999). Future direction and Objective setting for the development of Maternal Child Health Program, KIHASA.
- Im, Ji young (1997). The Effect on Stress cognition and Health condition of Premature Infants mother through Supportive care and Information providing. published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Kyung Ja (2000). The Second study on Maternal Child Health Program in Asan cit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Jung, Kyung Hwa (1999). The Effects of Planned Nursing intervention on Stress, Maternal role strain and Maternal role performance in Premature Infant Mother, *Korean J of Child Health Nursing*, 5(1), 70-83
- Kenner, C., & Lott, J. W. (1990). Parent transition after discharge from the NICU. *Neonatal Network*, 9(2), 31-37.
- Kim, Mi Ye, et al. (1999), *General Pediatrics Nursing*: Su Mun Sa
- Kim, Sun Ok (2000). Survey for Health care Needs of premature baby at home.

- 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oo, Hyun young (2000). The effect of Kangaroo Care on Body weight, Physiologic Responses and Behavioral states in Premature Infants . J Korean Acad Nurs. 30(1), 171-18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6, 1998, 1999, 2000). Korea Statistical Yearbook.
- Kwon, In Su (1993).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between Full term Infants and High risk Infants, published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Mi Kyung, Han, Kyung Ja(1991). A Study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Maernal Identity in Mother-Infant dyads of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J Korean Acad Nurs. 21(1), 79-88
- Lee, In Hae (199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tervention on Mood and Maternal Confidence of Premature's Mothers. 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ang Yi & Hong, Seong Chul (2003). Difference in Incidence Rate of Low Birth Weight among the Parental Social Strata in Korea. J of Health & Social Science. 13, 61-79.
- Lee, Young Ku, Lee, Hee Min & Shin, Mu Chunl (1995). A Study on Clinical and Statistical Observation for Aging Postpartal Women. Korean J Obstetrics & Gynecology, 38(4), 582-589
- Lee, Chel (1997). Currency and Problems of low-birth weight infants in Korea. J of Korean Neonatology, 5, 1109-1114
- McKim, E. D. (1993). The difficult first week at home with a premature infant. Public Health Nursing, 10(2), 89-96.
- Moon, Yeoung Im, Ku, Hyung Young(1999). Parental Role Stress and Perception of the Newborn in Mothers of Preterm Babies. J Korean Acad Nurs. 29(1),174-182.
- Nurcombe, B., Howell, D. C., Rauh, V. A., Teti, D. M., Ruoff, P. & Brennan, J. (1984). An Intervention program for mothers of low birth weight babies: Preliminary resu l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3, 319-329.
- Park, Yeoung Ae (1985).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owth & Developmental Status of Premature and Full Term Infants During the First 3Years. J Korean Acad Nurs.15(3), 62-73
- Pascoe, J. M., & French, J. (1990).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aternal Social Support Index for primiparous mothers. Family Medicine, 22, 228-230.
- Peterson, K. E., & Frank, D. (1987). Feeding and growth of premature and small for gestational age infants. Follow-up management of the high-risk infant.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Piecuch, R. E., et al. (1997). Outcome of infants born at 24-26weeks' gestation II. Neuroeveopmental outcome. Obstetrics & gynecology, 90(5), 809-814
- Rauth,V.A et al. (1988). Minimizing Adverse Effects of Low birth weight : Four-year results of an early intervention program. Child development, 59(3), 544-55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In M. Rosenberg (Ed.).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m, Mi-Kyung (1997). A Study on Self-esteem, Coping Type and the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J Korean Acad Nurs. 27(3), 673-682.
- Trause, M. A., & Kramer, L. (1983). the effects of premature birth on parents and thei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5, 459-465
- Weisglas-Kuperus, N., Baert, S. W., Smrkovsky,

M., & Sauer, P. (1993). Effects of biological and social factors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very low birth weight children. *Pediatrics*, 92(5), 658-665.

Yi, Young (1985). A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Hom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Yonsei University collection treatises, 21, 379-397

Zahr, L. K.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onfidence and mother-infant behaviors in premature infa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4), 279-286.

- Abstract -

The Effects of Follow-Up Care on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Maternal Confidence in Low Birth-weight Infant's Mothers

Lee, Kwang-Ok · Lee, Ja-Hyung*
Paek, Yun-Mi***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ollow-up care on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maternal confidence in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Method:** This study applied a quasi-experiment study method to examine the pre-post intervention effects. Eighty-eight mothers whose infants were below 2.5kg of Low birth weight were studied. The period for the data collection was from July to December in 2003. Self Reported Survey and Face to Face Interview by the highly trained home Visiting Nurses were used for this study. **Result:** Most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core of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maternal confidence after they received the intervention. **Conclusion:** Longitudinal study for the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might reveal more comprehensive findings. Moreover, follow-up care, which is linked with community health care services, is needed to continue the post hospital care services. Additionally, qualified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Key words : Low birth-weight infants,
Follow-up care, Social support,
Self-esteem, Maternal confidence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Course,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